

2/18/24

설교 제목: 계속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4 장 2-6 절

(골 4: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 4: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 4: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 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배경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문제에 관련한 기독교 교리와 성도로서의 실천적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도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권면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성도로서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언급하며 결론으로 기도를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좁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골 4: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에 사용된 헬라어 '테 프로수케'는 '청원 탄원(petition)'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으라’에 사용된 헬라어 ‘그레고룬테스’는 영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에서 ‘계속하다’는 ‘건디며 앞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럴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낮도 하나님의 것이요 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의 삶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처음에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합 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 3: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장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며 가축이 없을 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쁘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더불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서 부터 시작됩니다.

세째,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 긴장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인 디모데 에바브라를 위해 기도를 당부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열리게 해 달라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인 바울이 영적으로 연약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골 4: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요청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디다.

비록 자신이 영어의 몸일지라도 상관치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가 옥 중에 갇혀 매임을 당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골 1: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 (골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 (골 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 (골 2: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 (골 2: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곧 복음은 영원 전에 계획된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비밀이었고 신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핍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이라 생각하여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 오신 것이죠.

그것도 당신을 핍박하는 한 인간을.

그리고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신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인 바 된 것은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골 4: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선포하길 원했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훨씬 전,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해 알고 있는 성도들이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은혜롭고 재치있게 하여 비그리스도인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골 4: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 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은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다'의 헬라어 '엑사고 라조메노이'는 본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쓰는 말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 구입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 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롭게 대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는데 '소금'은 '재치'나 '기지'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 혼탁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말세지말에 들어선 오늘날의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공의도 사라졌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되어 제각각 자신의 소견이 진리라 말하며 자신이 행하는 것이 공의라 떠듭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사탄 마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성도들의 구원을 막으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체험하여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